

“민생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역점 추진”

2025년 강진군 현황·주요 역점사업

#현황
 · 인구수 3만2197명
 · 예 산 6335억원
 · 직원수 983명

#역점사업
 · 고소득 작목 논콩 재배 확대 농가 소득 증대
 · 생활인구 증대 지역발전 선순환 구조 창출
 · 누구나 반값여행 확대
 · 마을경로당 보수·리모델링
 · 강진품에 청년 주거비 지원
 · 강진 음식타운 조성



2025 새해설계

강진원 강진군수

**명절 지역상품권 할인·한도액 상향
반값여행 지속... 기회·지원비 확대
농·림·축·수산업 1차 산업 투자 확대
“관광객 유치, 생활인구 증대 목표”**

강진원 강진군수는 2025년 신년사를 통해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우선 과제로 삼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달 말 설 명절을 맞아 지역상품권 구매할인율을 10%에서 15%로 확대하고 월 구매한도액을 100만원으로 늘려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강진 반값여행’은 누구나 반값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고 1인 연 2회만 가능했던 신청 기회는 4회로, 1인 여행객 지원비 5만원은 10만원으로 확대해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내 소비를 증가시킨다.

건설경기 부양책으로는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 올해 상반기에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농·림·축·수산업 등 1차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농어가 소득증대에도 힘쓴다. 강진군 주력산업인 1차 산업 육성을 위해 전체 예산의 28.2%에 해당하는 1325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기후 변화 대응과 함께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으로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미래 농업의 주역인 청년농업인 육성에도 노력한다.

전남 10대 브랜드쌀에 19년 연속 선정된 강진쌀의 경쟁력도 유지시킬 예정이다. 특히 기능성 쌀 ‘미호벼’와 고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논콩’, ‘서리태’를 확대 재배해 농가 소득을 확대할 계획이다.



강진원 강진군수.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는 전용 농기계 지원을 확대하고 중국 수출을 통해 벼 재배 농가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한다.

또 강진한우의 1등급 출현율을 향상시켜 고급육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높이고 흑염소 사육을 확대, 강진 축산업을 육성한다.

두릅나무, 엄나무 등 소득작목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강진만 패류감소 손해보상 소송을 진행해 3000여여업인들의 목은 체증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강진군은 올해를 ‘생활인구 증대 원년의 해’로 삼고 관광객을 유치, 지역경제 발전을 일으키는데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앞서 군은 교부세 개선을 지속 건의한 결과 올해부터 행사·축제성 경비 페널티가 폐지되고 합계출산율

이 높은 지자체에 교부세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오는 2026년부터는 교부세 기준에 생활인구가 반영된다.

이에 다채로운 축제와 관광사업으로 관광객 유치 및 매출 증대를 모색하고 농업 등 1차 산업과 외식업, 3차 산업을 동시에 발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정주인구와 생활인구를 증가시켜 지역이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도 만들 계획이다.

특히 강진군의 바다낚시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고스란히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전국 바다낚시대회 개최, 바다낚시배 확대와 함께 강진항을 마량항의 확장구역으로 개발해 활용도를 높이고 급증하는 해양관광레저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지난 20년 가까이 실현하지 못한 대구면 용운리 ‘강진 웰니스 테마파크’는 오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한다. 가우도에는 ‘빛의 숲 관광갤러리’를 조성해 가우도를 관광 거점으로 재도약할 방침이다.

이밖에 청년들에게 강진이 기회의 땅이 되도록 주거비 부담을 줄여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

외지 전입 청년들이 강진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매월 최대 25만원의 ‘강진품에 청년 주거비’를 지원한다.

육아정책 또한 인구유입에 빼놓을 수 없는 정책임에 따라 출산율 증가 효과가 입증된 육아수당을 지속 추진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쓴다.

이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서 오는 2026년부터 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 설립을 본격화해 매년 90명의 유학생을 유치,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방침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2025년은 강진군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군민과 소통하고 강진의 우수자원과 군민의 휴먼파워, 4차산업혁명 기술을 연결해 신(新)강진을 창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강진군, 인구정책 우수 시군 선정 ‘우수상’

육아수당 등 성공 사례

강진군이 전남도가 실시한 2024년 인구정책 우수 시군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지역맞춤형 인구정책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2일 강진군에 따르면 이번 수상은 강진군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들이 큰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과 육아수당 정책은 지역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에서 효과를 발휘하며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앞서 군은 농촌 지역의 빈집 문제와 인구 감소 위기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추진, 1년 이상

방치된 집을 리모델링해 도시민에게 임대하거나 귀농·귀촌 가구의 자가 거주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까지 총 91가구의 빈집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했으며 37가구 80명이 강진군으로 전입을 완료했다.

해당 사업은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 마을의 활력을 되살린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전남도에서도 이러한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 빈집 활용 정책을 도내 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강진군 육아수당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정책을 도입,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60만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2023년 기준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69.2% 증가했으며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1.47명을 기록했다.

강진 육아수당은 전남도와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했으며 행정안전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강진군의 인구정책 우수사례를 직접 시찰하는 등 강진군 인구정책의 정책적 성과를 증명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강진군은 기존 정책을 더욱 확대하고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수상은 강진군의 창의적 인구정책과 지역 주민의 협력이 빛어낸 결실이다”며 “앞으로도 강진군은 모두가 살고 싶은 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구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김윤복 기자**

강진군, 풀치터널 입구 가로경관 신규 단장

관내 소공원 수목 이식 ‘예산절감’

강진군이 풀치터널 강진 방향 구간 경관조성 사업을 최근 완료하고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2일 강진군에 따르면 국도 13호선 강진 초입부 일원의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경관을 위해 도로변 임야 잡목 제거와 꽃피는 수목을 심었다.

특히 풀치터널 앞 중앙부와 도로변을 중심으로 배롱나무, 꽃피는 잔디(쿠라피

아), 삼색버드나무와 공작단풍 등 계절감을 살릴 수 있는 다채로운 수목을 심어 자연스러운 경관을 완성했다. 특히 배롱나무는 강진군 소공원에 있던 수목을 이식해 심어 예산 절감과 자원 재활용의 사례를 보여줬다.

도로변 숲 가꾸기 작업도 병행해 산림경관 개선뿐 아니라 탄소흡수능이 높은 생태적으로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향후 지역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추가적인 환경 관리와 유지 보수를 병행할 계획이다. **강진·김윤복 기자**

강진군, 걷기 챌린지 ‘워크온’ 확대 운영

목표달성자 지역상품권 지급

강진군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실시한 ‘스마트한 군민 건강걷기사업’이 군민 건강증진은 물론, 기부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1석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2일 강진군에 따르면 건강걷기사업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워크온’을 통해 군민들이 자율적으로 걷기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역 건강통계 개선의 발판을 마련하고 민선 8기 공약사업인 ‘건강하고 행복한 강진 만들기’의 핵심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에는 총 2만4438명이 참여해 1만7485명이 목표를 달성했으며 이 중 1

만3159명에게는 성공보상으로 강진사랑 상품권을 지급했다. 챌린지 달성자 중 366명은 상품권을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하기도 했다.

건강걷기의 목표는 25일 동안 20만보(하루 최대 1만보 인정)로 설정됐으며, 60세 이상은 달성자 전원에게, 19세에서 59세까지 달성자에게는 30%를 무작위로 추첨해 1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했다.

올해부터는 워크온에 가입하고 목표를 달성한 19세 이상 모든 군민에게 강진사랑상품권 1만원이 지급된다.

워크온 관련 사항은 강진군보건소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061-430-5061~7)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김윤복 기자**

강진군보건소, 이용 편의 증진 새 단장

민원 전용 주차장 등

강진군보건소는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한 보건소 리모델링 공사가 최근 모든 공정이 마무리되면서 새 단장한 모습으로 군민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됐다. 2일 밝혔다.

강진군보건소는 2003년 이전 신축돼 2015년 한차례 개·보수 및 증축이 이뤄졌으나, 일부 시설이 변형·파손되고 조명 등 노후 기구로 에너지 효율성이 저하돼 왔

다. 또 민원 공간의 비효율적 배치로 군민 불편을 야기하는 등 시설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리모델링 공사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등 총 사업비 5억2000만원을 확보해 진행됐으며 창호·유리·LED조명 등을 교체해 에너지 효율을 증진시켰다.

민원 안내용 바닥 유도선 및 안내판, 민원전용 주차장을 설치하고 수유실·모자건 강상담실을 1층으로 이동 배치하는 등 군

민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더불어 민원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1층에는 환기 설비를 완비해 감염 우려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했고 사무실 등 주요 공간의 마감재를 교체해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했다.

강진군은 보건소 리모델링에 이어 올해에는 성전보건지소를 예방적 기능을 강화한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전환 증축한다. 건강에 대한 인식 강화와 예방에 중점을 둔 보건사업의 변화 등 정책 기초를 반영한 보건기관 시설개선을 오는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강진·김윤복 기자**